

한국학 호남진흥원 설립 '순조' 전북도·전주시 참여로 1천억 국비 지원 '탄력'

‘호남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게 될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이 탄력을 받고 있다. 광주·전남 뿐 아니라 전북 지역 광역단체의 참여로 국비 지원을 위한 재단 법인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학호남진흥원설립추진위원회(이사장 이상식·이하 추진위)는 최근 김완주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주시장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재단설립에 필요한 이들 광역단체의 참여를 유도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재단설립 허가를 받으면 재단의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광역단체여야 한다. 현재 추진위에는 광주·전북·전남도만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추진위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재단 설립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이 규정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재단법인 허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전북도와 전

주시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추진위는 김효석·이정현·이낙연·김재균·박주선·강창일 국회의원과 등과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1천억원의 한국학호남진흥원 건립비의 국비 지원을 위한 특별법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추진위 이상식 이사장은 “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의 문화 원류를 형성하고 있는 호남 인물과 역사, 문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지역 인재를 교육하는 기관이다”면서 “재단 기금 모금과 국비 지원 등을 위한 다각적인 작업을 통해 명실상부한 호남학 연구의 중심 기관으로 만들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타지역에서는 한국학 중앙연구원(서울·경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는 ‘기호학’을, (재)한국국학진흥원이 경북 안동지역의 ‘영남학’을 집중 연구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인류 최초 화폐 보러 오세요”

박용권씨 희귀화폐 전시회, 주공 광주·전남 지사

“희귀 화폐 무척 대고 모으지 말고, 가치를 알고 소장하세요” 30여년 동안 각종 돈을 수집해 온 박용권(42)씨가 관람객들이 소장하고 있는 희귀 화폐를 감정해주는 이색 전시회를 마련했다.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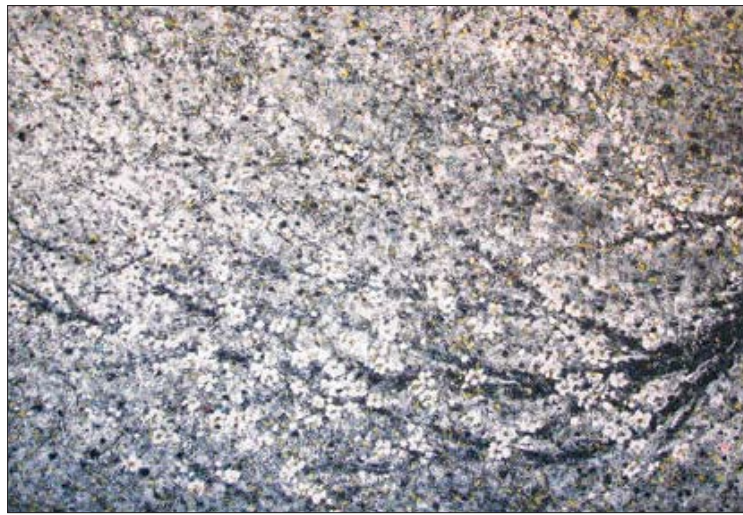


박씨는 오는 7월11일까지 광주·전남지사에서 ‘희귀화폐’ 전시회를 갖는다. 기원전에 유통됐던 희귀 화폐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이다. 화폐 전문가인 박씨는 관람객들의 소장 화폐를 감정해주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인류가 처음으로 사용했던 은나라 동불베 화폐인 ‘골페화’와 중국 춘추시대의 사람을 닮은 돈 ‘반쪽포’ 등 800여 점이 선보이

다. 근대 한국 돈의 변화를 알기 쉽도록 시대별로 조선은행권, 한국은행권 등도 전시된다. 또 조선시대 전라감영, 경기감영 등 전국의 42개 주전소(鑄錢所)에서 만들었던 돈을 지역별로 전시, 주전소별 특징들을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중국, 일본, 북한 등 아시아 국가와 유럽 등 전세계 61개국의 다양한 돈도 결집되었다. 문의 011-604-613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제 44회 전남도 미술대전

<부문별 대상작>



▲한국화=위진수 작 '눈속에서 매화꽃을 찾다'



▲서양화=백명숙 작 '아직 남아있는 사랑'



▲문인화=설인수 작 '따뜻한 향기'

琴墨氣全濃
石涼嶂聽對



▲공예=정기웅 작 '청자 2008'

▲서예=장경임 작 '방산선생 시구'



▲건축=김용환 작 '(메)무아레'

한국화 위진수·서양화 백명숙씨 대상

전남도와 한국에총전라남도연합회(회장 하철경)는 29일 호남대학교 대강당에서 제44회 전남도 미술대전 심사를 갖고 한국화, 서양화, 서예 등 9개 부문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의 응모작은 모두 1천523점이었으며 이 가운데 대상 6점, 우수상 9점, 특선 246점 등 817점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한국화 부문에서는 위진수씨의 '눈 속에서 매화꽃을 찾다', 서양화 부문에서는 백명숙의 '아직 남아있는 사랑'이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서예는 장경임씨의 '방산선생 시구'가 대상을 받았다. 또 사군자(문인

화) 설인수씨의 '따뜻한 향기', 공예 정기웅씨 '청자 2008', 건축 김용환·문병철·박경덕씨 '(메)무아레'가 각각 대상을 차지했다.

사진, 조각, 시각디자인은 대상작을 내지 못했다. 한국화가 이영수 심사위원장(단국대 예술대학장)은 “출품작들의 수준이 대체로 향상됐으며, 작품 완성도나 질적인 면에서도 수상작이 많았다”고 평했다.

시상식은 오는 7월25일 목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대상작은 7월24~8월12일까지 목포 문화예술회관 전시관에서 전시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부문별 우수상·특선 입상자 명단

- ◇한국화
▲우수상=장명자
▲특선=손세원 최복길 정한나 이상성 김관식 김은하 고영석 손선심 김병애 최광순 배영민 고천석 이재호 박주희 송영화 도수연 이순덕 임동화 박경은 어숙희 최애경 김우경 박민숙 기경숙 정진호 김병규 정경도 명현철 임보라 박성환
- ◇서양화
▲우수상=한임수
▲특선=강현화 선명주 박혜주 박화자 이종숙 이경현 이영범 김향숙 김미연 민병화 가효자 소민경 윤정자 오수은 서경에 장원희 김미영 강예스더 정해숙 오영옥 김금희 허정 김연 임근재 김남주 우미혜 최요안 김용공 박성용 이치선
- ◇서예
▲우수상=서동국 박병주(서각)
▲특선=장혁균 문경훈 반희찬 박순중 김영순 임순자 임승란 최영선 김숙 배진 오동석 이상희 정재석 김선우 이경자 최환재 김영현 조명숙 박지현 이영선 신길용 김택래 윤해란 이주립 김미숙 박정철 김중숙 김선자 김정섭 심우섭 김영룡 박종애 윤기성 이기숙 우영인 남규덕 박봉근 이슬림 이해광 오성자 김선규 김일환 하용자 박래근 박태병 이봉순 오병록 임정택 오순희 김광남 이춘금 광기서 서거라 김덕중 이규대 엄현숙 임순이 조재대 황인옥 이경희 박종삼 이난영 하태암 김승규 홍주열 문연봉 김신자 김복수 임형이 정희 이은숙 조성순 조병춘 성철재 심재숙 심향옥 김재섭 김중희 최영호 이은순 박광성 김일두 주연숙 권영원 정은비 서화진 김진석 변순희
- ◇공예
▲우수상=정기웅
▲특선=김현욱 명현식 김삼순 고현숙 ▲서각 특선=장갑식 고호균 배민한 진상훈 위혁수 김창식 김택진 김상덕 백운선 이명진 류재구 임재준 조의형 황매자 유복성 황운순
◇사군자(문인화)
▲우수상=이옥남
▲특선=김교심 신인철 손광복 이영민 김옥진 임영택 김원자 김재홍 김승호 김계수 박경남 정재경 정민순 김선희 정철수 김호풍 김보미 김경자 이명숙 오영훈 신동석 이태재 박도길 김은자 김광남 한계서 권양희 김경옥 이상희 김양숙 이광길 오남래 김남주 김청자 김명혜 조성순
◇사진
▲특선=배상만 심치봉 조로목 정재삼 박유근 윤백순 전미란 이성과 신상근
◇공예
▲특선=최광문 이지원 민은주 김윤정 허지혜 강철은 최재민
◇조각
▲우수상=천기정 ▲특선=번지수 김기원 이병선 최희원
◇건축
▲우수상=송영하·서길남·김대욱
▲특선=김화철·이예희·정보영 김효현·최은은 정은영·조은·고수진 김동우·김희승·조아남 최희정·김혜솔·방보람 이상현·윤계영·조찬민 이승룡·추미란·김홍걸 여재환·이병창·김윤지 최보영·정동열·서경진 노은상·권민지 박준래·정재훈
◇시각디자인
▲우수상=이승찬·김민석
▲특선=임창희 조연자 조상효 이삼일 박준영